

# EXTRAPPOOL

## 엑스트라풀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위치한 엑스트라풀은 스텐실 인쇄소인 크누스트(Knust)를 포함해 실험 음악, 미술, 디자인,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1980년대 중반 아티스트 프로젝트 공간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으며, 전통적 인쇄 기법인 스텐실 인쇄를 재발견, 활성화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독립 출판계 및 젊은 디자이너 그룹을 중심으로 스텐실 인쇄가 인기를 끌면서 디자인계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인쇄, 제본뿐만 아니라 책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음악 및 퍼포먼스 공연을 열고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음반을 제작하기도 한다. 엑스트라풀은 또한 책 제작을 중심으로 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기획, 출판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 EXTRAPPOOL

Located in Nijmegen, The Netherlands, Extrapool is a cultural venue for experimental music, performance art, small press publications and exhibitions. It started as an artists' project space in the mid-1980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self-run printer, Knust, that revived and revitalized the traditional stencil printing technique. Knust has been renowned especially in the last few years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stencil printing among self-publishing artists and young designers. They provide various workshops on printing, binding and bookmaking, as well as regularly hosting concerts and performances. Their artist-in-residency program enables people to create a music CD on location and will have book-artists come in to publish their work in the near future.

GIJS FRIELING  
—VERNACULAR  
PAINTING  
/BOOK  
/DESIGNED BY  
JOB WOUTERS  
/2009

헤이스 프리링  
—모국어 회화  
/책  
/출 바우터르스  
디자인  
/2009

Gijs Frieling

# VERNACULAR PAINTING

with an essay  
by Ruth Noack

and lettering  
by Job Wouters



## EXTRAPOOL



Gijs Frieling - Vernacular Painting  
Book; Designed by Job Wouters; 2009  
헤이스 프리링 - 모국어 회화  
책; 욘 바우터르스 디자인; 2009

It's very rare to make an artist book (or a work catalogue) using stencil printing. This technique is not very suitable for representing artwork. Job Wouters counterplotted this roughness as a strength, and emphasized Gijs Frieling's mural pieces and the designer's own hand-lettering work by giving it a peculiar texture. It's still an issue that it cannot show the subtleness of the artist's work, but it surely broke the stereotype of an artist catalogue.  
/ Extrapool

I designed this book for and with Gijs Frieling, a Dutch painter and muralist. The concept of the book was to push its appearance (and particularly the typography) as close to Gijs' work as possible. I think I succeeded and the book is therefore, in a good way, somewhat confusing; it is not clear where Frieling's work ends and where my work starts. As result, it has become a book that showcases both our work. I am really pleased with the outcome, and very proud that it has been selected for "The Best Dutch Book Designs 2009", a prestigious annual design event in The Netherlands. It was printed by Extrapool, who specialize in a rather obscure printing technique called mimeography, and published by Valiz.  
/ Job Wouters

아티스트의 작품집(카탈로그)을 제작하는데 있어 스텐실 인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작업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결코 좋은 기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디자이너 욘 바우터르스는 오히려 거친 그

느낌을 적극 이용해 헤이스 프리링이 자주 작업하곤 했던 벽화의 느낌뿐만 아니라 자신의 레터링 작업에도 독특한 질감을 부여했다. 작품을 정확히 보여 줄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아쉽지만 카탈로그 제작 방식의 고정관념을 깬 책이다.  
/엑스트라풀

네덜란드 화가이자 벽화 제작자인 헤이스 프리링의 의뢰로 그와 함께 작업한 책이다. 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벽화 예술가다. 이 책의 컨셉트는 책의 모습, 특히 타이포그래피를 헤이스의 작품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뽑아내는 것이었다. 우리의 의도는 성공했고 따라서 이 작업은(좋은 의미로) 혼란스러운 책이 됐다. 어디서부터가 프리링의 작업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작업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작업이 되었다. 나는 결과물에 매우 만족하며 이 책이 네덜란드의 명망 있는 디자인 연례 행사인 '2009 베스트 네덜란드 디자인 북'에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소 덜 알려진 인쇄 기법인 미메오그래피를 전문으로 하는 엑스트라풀에서 인쇄했으며 발리즈에서 출간했다.  
/욘 바우터르스



Rien ne va Plus:  
Architecture in times of crisis  
Poster; designed by Experimental Jetset; 2009  
더 이상 내기는 없다,  
위태로운 시기의 건축  
포스터; 익스페리멘털 젯셋 디자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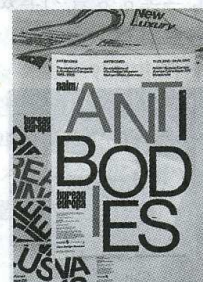
Printed in 2 colors: red and black. Experimental Jetset really like matte hard black that stands out from the paper and swallows the light up. To obtain this quality, the key is to make the black a tiny bit bluer than usual. This makes it look more matte and real. The tone of the red is right in the middle of the white and the black.  
/ Wyber Zeefdruk

## WYBER ZEEFDUK

"Rien ne va Plus" was an exhibition which took place at NAIiM / Bureau Europa, an architecture museum located in Maastricht (NL). For this exhibition, we designed several posters (A0 and A2), the invitation, and a publication with short essays. The theme of the show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crisis. For the poster, we wanted the type to refer to tumbling financial statistics, collapsing markets, crumbling buildings. That's why the letters on the poster are tumbling down. Part of the exhibition was a separate show called "Reading Europe". So we decided to put the title of "Reading Europe" on the poster in a separate colour.

/ Experimental Jetset  
빨강과 검정 2색으로 인쇄했다. 익스페리멘털 젯셋은 강한 무광 검정색, 즉, 종이에서 두드러져 보이고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검정색을 매우 선호한다. 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 핵심은 보통의 검정색보다 약간 더 푸른 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차분하고 진짜 검정 같아 보인다. 빨강의 톤은 정확하게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쯤이다.  
/비버르 제이프드릭

'더 이상 내기는 없다'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 위치한 건축 박물관인 나임(NAIiM)/부로 유로파(Bureau Europa)에서 열렸던 전시다. 우리는 이 전시를 위한 A0, A2 사이즈의 포스터 몇 가지와 초대장, 짧은 글을 모은 출판물 등을 디자인했다. 포스터를 디자인하면서 우리는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 내리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폭락하는 경제지표와 붕괴하는 시장, 무너져 가는 건물 등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시 가운데 '독서하는 유럽'이라는 개별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 제목만 다른 색을 사용했다.  
/익스페리멘털 젯셋



Antibodies, NAIiM/Bureau Europa